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2 pp. 470-475,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47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베이비부머세대의 문화활동에 관한 연구

조태선[1], 배나래[2*]
[1]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2]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Cultural Activity among the Baby-boom Generation

Tae-Seon Cho[1], Na-Rae Bae[2*]
[1]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2]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들의 문화환경을 만들어 성공적인 노후를 맞을수 있도록 하며, 베이비부머세대에 적합한 문화도시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대전,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버부머(1955년~1963년)세대를 대상으로 직접면접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29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인 문화활동태도, 문화활동 필요성 및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베이비부머세대들은 문화활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깊은 공감을 표하였지만, 실제 참여경험은 전무했으며, 이는 문화활동태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문화환경 및 시설을 확대하여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곳, 대화를 나누고 취미나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둘째, 베이비부머를 위한 문화공간은 지리적 접근성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을 고려한 문화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물러 친목도모, 여가활동, 취미생활, 휴식 등의 복합적인 장으로 활용가능한 장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세대들을 위한 문화자원・문화공간 조성・공간의 복합화・공간의 브랜드화로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문화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vitalization of the existing senior cultural activity centers as a new venue for the social and cultural activity of the baby-boom generation. Unlike the previous generation of seniors, the baby-boom generation (born in 1955-1963) has a strong desire to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as well as working for their living. In order to meet their needs, it is proposed that the existing senior cultural activity centers be redesigned and transformed from an elderly welfare perspective.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cluding questions on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need for cultural activities, social activities, and job-training programs. The data collected from a total of 229 baby-boomer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by cross-tabul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most of the baby-boom generation strongly agreed that they were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elderly generation in terms of their education and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Therefore, a new system for the senior cultural activity centers which can integrate these various needs is suggested to encourage the baby-boomers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even after their retiremen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 new paradigm for the senior cultural activity centers is proposed in order to enhance their quality. The application and practice of our research results would be very important, because larger numbers of baby-boomers are gradually retiring from the workforce, an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ir ongoing integration in society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society in general.

Keywords : Baby-boom Generation, Cultural Activity, Cultural Activities Attitude, Cultural activity need, Cultural activity experience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KonYang Cyber Univ.)
Tel: +82-42-600-6520 email: victory0302@kycu.ac.kr
Received November 17, 2016 Revised December 5, 2016
Accepted December 8,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1. 서론

현대사회의 노인세대는 조기은퇴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과거의 노년기의 삶과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의 어떤 세대도 지금의 노년세대와 같이 긴 시간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본 전례가 없다. 근래에 들어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한 신 노년 문화 현상은 이러한 후기산업사회의 고령사회의 위기와 가능성이라는 커다란 흐름에 맞닿아 있다. 특히 노년기에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는 최근 신 노년 문화에 대한 관심을 두고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로 1955년부터 1963년에 출생한 세대이다. 노년의 새로운 문화적 지형도에는 두드러지는 특징적 경향성은 신노년층은 점차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새로운 문화세대의 주인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신노년층이 향유할 문화형성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일을 최우선시 하며 직장과 가정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세대는 부모세대와 달리 스스로의 정신건강과 노후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는 세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노년학 분야와 문화산업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문화환경을 만들어 성공적인 노후를 맞을수 있도록 하며, 신노년세대 즉 베이비부머세대에 적합한 문화도시형성을 위한 환경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문화활동태도와 문화활동 필요성 및 경험은 어떠하며 이들의 상호관련성은 어떠한가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베이비부머세대

베이비붐(Baby Boom)은 어떤 시기에 태어난 영유아의 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 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에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세대로 칭하고 있으며, 이들 베이비부머세대들은 기존 세대와는 다른 특수한 정치,문화,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삶을 보낸 세대이다. 구체적으로 1950년대의 절대적 빈곤시대를 거쳐 정치적 민주화의 태동기를 겪었으며, 고등교육의 기회의 확대가 충분치 못해 격심한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를 살았다 [1] . 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때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으며 IMF라는 유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대가족시대에서 핵가족화의 가족변화를 겪으며 대가족세대에서 행하던 의무적인 부모공양의 마지막세대로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이처럼 부모봉양, 자신들의 노후준비, 전방위적 자녀부양에 베이비부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관적인 삶의 질도 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4] . 특히 은퇴를 경험해야 할 시기에 당면한 베이비부버세대들은 향유할 사회문화적 환경도 부족하여 은퇴후 사회적 고립, 정서적 고립 등 부정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문화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시급하다 할수 있다.

2.2 문화복지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이다. 문화는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문화란 환경속에서 사람의 물질적, 정신적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소통의 목적도 지니고 있다. 최근에 문화와 복지의 합성어로 문화복지라는 전문용어가 등장했다. 문화에 복지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으로는 경제발전과 국민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적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복지와 결합한 문화측면에 관심이 커지면서 개념이 확장되게 되었다 [5] . 문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복지는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사회현상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 인식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나 베이비부머세대의 문화향유, 문화공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문화적 접근에 의한 베이비부머세대의 문화공간마련과 양질의 프로그램마련은 다양한 세대의 문화 발전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대전,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버부머(1955년~1963년)세대를 대상으로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면접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5년 3월5일부터 2015년 3월29일까지 30명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분석한 결과 적합하지 못한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본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5월3일부터 2015년 6월5일까지 실시되었다. 수집된 270부 중 응답이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9부를 분석하였다.

3.2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베이비부버 문화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기초로하여 작성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문화활동태도, 문화활동 필요성 및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spss2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주요 변인인 문화활동태도, 문화활동 필요성 및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Table 1), 남성은 44.1%, 여성은 55.9%로 응답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21.4%, 고등학교졸업이 48.9%, 대학교졸업 14.4%, 대학원졸업이 15.3%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46.3% 건강하지 않다가 35.8%, 보통이다가 46.3%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많은 수는 건강한 편임을 알수 있다. 경제상태는 중상층이다가 53.7% 중산층이하다는 응답이 39.7%, 아주 잘산다라는 응답이 6.6%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y	N(%)
Gender	Male	101(44.1)
	Female	128(55.9)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49(21.4)
	High school	112(48.9)
	University	33(14.4)
	Graduate school	35(15.3)
Health	Good	106(46.3)
	Average	41(17.9)
	Bad	82(35.8)
Income level	High	15(6.6)
	Middle	123(53.7)
	Low	91(39.7)

4.2 베이비부머세대의 문화활동태도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문화활동태도를 보면(Table 2) '긍정적이다'가 45.4%, '부정적이다'가 54.6%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베이비부머세대는 과거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일에 몰입하며 문화활동이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활동은 가정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소극적인 활동을 주로 즐긴다. 또한 문화활동은 사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성별에 따른 문화활동태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은 베이비부머세대가 학력이 낮은 세대보다 문화활동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문화활동태도에 긍정적이였다.

Table 2. Cultural activity attitude

		Cultural Activities Attitude		
		positive	negative	
Total		104(45.4)	125(54.6)	X^2
Gender	Male	76(75.2)	25(24.8)	64.87***
	Female	28(21.9)	100(78.1)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3(26.5)	36(73.5)	32.25***
	High school	41(36.6)	71(63.4)	
	University	24(72.7)	9(27.3)	
	Graduate school	26(74.3)	9(25.7)	
Health	Good	58(54.7)	48(45.3)	7.15*
	Average	14(34.1)	27(65.9)	
	Bad	32(39.0)	50(61.0)	

*p < .05 **p < .01 ***p < .001

4.3 베이비부머세대의 문화활동의 필요성 및 경험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문화활동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문화활동이 필요하다'가 66.9%, '문화활동은 필요하지 않다'가 33.2%로 문화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문화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문화활동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은 높게 나타

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문화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에 쫓겨 문화활동에는 소외되었던 남성들이 질높은 생산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변화로 보인다. 또한 학력과 건강상태는 문화활동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은 다양한 문화경험을 접할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문화활동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는 것이며, 문화활동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어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Table 3. Cultural activity need

		Cultural activity need		
		need	needless	
Total		153(66.9)	76(33.2)	χ^2
Gender	Male	84(83.2)	17(16.8)	21.80***
	Female	69(53.9)	59(46.1)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23(46.9)	26(53.1)	22.24***
	High school	71(63.4)	(41(36.6)	
	University	27(81.8)	6(18.2)	
	Graduate school	32(91.4)	3(8.6)	
Health	Good	83(78.3)	23(21.7)	11.82*
	Average	24(58.5)	17(41.5)	
	Bad	46(56.1)	36(43.9)	

*p < .05 **p < .01 ***p < .001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문화활동의 경험을 Table 4에서 살펴보면, '문화활동경험이 있다'가 36.7%, '문화활동경험이 없다'가 63.3%로 문화활동에 대한 실제적 구체적 참여는 낮았다. 이는 앞서 본 문화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실제 참여에 대해서는 낮은 반응은 아직 문화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자신을 위한 문화활동을 즐길줄 모르는 이유도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들의 문화활동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음도 문화활동 경험이 낮은 이유라 할수 있겠다.

Table 4. Cultural activity experience

		Cultural activity experience		
		yes	no	
Total		84(36.7)	145(63.3)	χ^2
Gender	Male	58(57.4)	43(42.6)	33.48***
	Female	26(20.3)	102(79.7)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8(16.3)	41(83.7)	27.40***
	High school	35(31.3)	77(68.8)	
	University	18(54.5)	15(45.5)	
	Graduate school	23(65.7)	12(34.3)	
Health	Good	51(48.1)	55(51.9)	11.11*
	Average	11(26.8)	30(73.2)	
	Bad	22(26.8)	60(73.2)	

*p < .05 **p < .01 ***p < .001

성별에 따른 문화활동 경험은 여성보다 남성이 문화활동경험이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할수록 문화활동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반적인 문화활동경험은 낮았는데, 특히나 여성의 문화적 활동경험이 낮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에게 필요한 문화활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홍보하여 빈둥지시기를 겪는 여성들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4 베이비부머세대의 문화활동태도와 필요 성 및 경험의 상호관련성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문화활동태도와 문화활동 필요성 및 경험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문화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베이비부머의 경우 문화활동태도가 긍정적이였으며, 문화활동경험이 없는 베이비부머보다 문화활동경험이 있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문화활동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의 문화활동태도와 문화활동 필요성 및 경험은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활동이 필요하고, 문화활동경험이 있는 베이비부머일수록 문화활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 즐길수 있고, 유익함을 줄수 있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문화활동참여와 경험이 문화활동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좋은 문화활동에 베이비부머들이 노출이 많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데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Table 5. Cultural activity attitude, need, experience

		Cultural activity attitude		χ^2
		positive	negative	
Cultural activity need	need	94(90.4)	59(47.2)	47.75***
	needless	10(9.6)	66(52.8)	
Cultural activity experience	yes	64(61.5)	20(16.0)	50.69***
	no	40(38.5)	105(84.0)	

*p < .05 **p < .01 ***p < .001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노년학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문화환경을 만들어 성공적인 노후를 맞을수 있도록 하며, 신노년세대 즉 베이비부머세대에 적합한 문화도시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업, 대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조사대상자의 많은 수는 건강한 편이였다. 경제상태는 중산층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문화활동태도를 보면 '긍정적이다'가 45.4%, '부정적이다'가 54.6%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베이비부머세대는 과거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일에 몰입하며 문화활동이 삶과 거리가 먼 시간을 살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활동은 가정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소극적인 활동을 주로 하였다. 또한 문화활동은 사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문화활동태도는 성별, 교육수준, 건강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문화활동태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은 베이비부머세대가 학력이 낮은 세대보다 문화활동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문화활동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문화활동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문화활동이 필요하다'가 66.9%, '문화활동은 필요하지 않다'가 33.2%로 문화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는 문화활동 필요성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문화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문화활동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문화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에 쫓겨 문화활동에는 소외되었던 남성들이 질높은 생산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변화로 보인다. 또한 학력과 건강상태는 문화활동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은 다양한 문화경험을 접할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문화활동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는 것이며, 문화활동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넷째,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문화활동의 경험을 살펴보면, '문화활동경험이 있다'가 36.7%, '문화활동경험이 없다'가 63.3%로 문화활동에 대한 실제적 구체적 참여는 낮았다. 이는 앞서 본 문화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실제 참여에 대해서는 낮은 반응은 아직 문화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자신을 위한 문화활동을 즐길 줄 모르는 이유도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들의 문화활동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음도 문화활동 경험이 낮은 이유라 할수 있겠다. 성별에 따른 문화활동 경험은 여성보다 남성이 문화활동경험이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할수록 문화활동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반적인 문화활동경험은 낮았는데, 특히나 여성의 문화적 활동경험이 낮다라는 것은,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에게 필요한 문화활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홍보하여 빈둥지시기를 겪는 여성들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문화활동태도와 문화활동 필요성 및 경험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면, '문화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베이비부머의 경우 문화활동태도가 긍정적이였으며, 문화활동경험이 없는 베이비부머보다 문화활동경험이 있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문화활동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의 문화활동태도와 문화활동 필요성 및 경험은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활동이 필요하고. 문화활동경험이 있는 베이비부머일수록 문화활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 즐길수 있고, 유익함을 줄수 있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문화활동참여와 경험이 문화활동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좋은 문화활동에 베이비부머들이 노출이 많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데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베이비부머세대들은 문화활동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깊은 공감을 표하였지만, 실제 참여경험은 전무했으며, 이는 문화활동태도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문화환경 및 시설을 확대하여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곳, 대화를 나누고 취미나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문화활동의 장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소통을 환경속에서 정보와 지식을 얻음으로써 고독과 고립에서 탈

피할 수 있고 은퇴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베이비부머를 위한 문화공간은 지리적 접근성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을 고려한 문화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친목도모, 여가활동, 취미생활, 휴식 등의 복합적인 장으로 활용가능한 장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세대들을 위한 문화자원・문화공간 조성・공간의 복합화・공간의 브랜드화로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문화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References

[1] Ji-Hye, Gang, A Study on Major Determinants of Leisure Activities among Baby-Boomer Generatio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2013.

[2] Soon-Dool, Chung, Hyun-Hee, Lee, “Life Satisfaction f or Baby-boomers: Compare 1998 with 2008”,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5, pp. 105-131, 2012.

[3] Young-Ho, Choi, Seong-Nam, Jeon,"Life design education, the aging of the baby boomers Study", Journal of th 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8(6), pp. 101-110, 2013.

[4] Hyeong-Min Kim, Dong-Hyun, Kim,"The Effects of Social Network on the Quality of Life by Baby Bommers",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Rehabit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54(4), pp. 89-100, 2015. DOI: https://doi.org/10.15870/jsers.2015.12.54.4.89

[5] Na-Rae Bae, “Study of an Effect of Korean Dance for Middle-Aged Womens as a Cultural Welfare”,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pp. 186-192, 2016.

조 태 선(Tae-Seon, Cho) **[종신회원]**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회장
- 2016년 5월 : 한국문화예술융합협회 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6월 9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배 나 래(Na-Rae, Bae) **[종신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철학박사)
- 2008년 8월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복지, 문화교육컨텐츠, 문화산업